

## GS칼텍스, 여수 사회공헌사업 1000억원 투자

GS칼텍스가 여수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됐다.

GS칼텍스에 따르면, 여수 망마산에는 공연장과 기획전시장, 다목적 홀, 에너지 관, 전망시설, 워터프론트(수변도시) 등의 시설이 들어서고 장도에는 상설전시장과 카페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배후지인 고락산에는 도심 속 생태체험의 장으로서 숲 속 공작실, 어린이 환경놀이터, 생태 산책로, 산림욕장, 잔디광장, 야외자연교실 등 다양한 친환경적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GS칼텍스는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2009년 상반기까지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건축가에 의뢰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9년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006년 GS칼텍스 재단 출범 당시 밝힌 출연금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200억원을 여수시가 부담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김병일 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박람회 부지인 여수 신항에 공연장을 세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GS칼텍스가 망마산에 공연장을 세우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며 “망마산에 세우려는 공연장 비용을 박람회 부지에 투자해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연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2/10>